

설 명절 주차장 10곳 무료

전주시설공단, 시민 불편 해소 위해 내달 2일부터 5일간 시설장 종합대책 추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 편의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5일간 '설 명절 연휴 기간 시설장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공단은 4가지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 △시민불편 해소 △시민 안전 확보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공직기강 확립 등이다.

먼저, 효자공원묘지 야외 봉안당 시설대책으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이직률과 장사시설을 정상 운영한다. 단 설 당일 화장은 휴무다.

또 귀성객 편의를 위해 종합경기장

(2~6일)과 노송천(2~5일), 동물원(4~6일), 실내체육관(5일), 한옥노상(5일), 삼천2동(5일), 중화산2동(5일), 서산동(5일), 건산천1~2주차장(5일) 등 10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한, 한옥마을주차장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오거리주차장 등 8개 유료 주차장은 유료로 정상 운영한다.

공단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각 시설장별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상습결빙구간 등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시설 진입도로 및 안전 취약시설을 일제 점검한다.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

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격려 활동을 진행한다. 또 전 직원 운수리 상품권 구매 및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추진한다.

동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시설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자체 경계, 경비도 강화한다.

전성환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을 위해 각종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과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편안하고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흰 방법셔터로 지나가는 시민들

지난 25일 전주시 시청 앞 고공농성장 차도에서 '최장기 고공농성투쟁 반드시 승리한다!' 택시 완전월급제 입법쟁취 및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실시된 가운데 교섭을 위해 시청으로 진입하려는 노조원들이 방법셔터를 망가뜨려 농자 시민들이 불편한 자세로 시청을 출입하고 있다.

삼천동 자원순환특화단지에 공업용수 공급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8월까지 공업용수관 매설 추진

전주시가 삼천동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한 재활용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 맑은물사업본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자원순환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총 18억 원을 투입, 혁신동 한국농수산대학 인근에서 삼천동 전주중합리사이클링 타운까지 총 4.8km 구간에 공업용수관을 매설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는 우수 재활용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음식물 처리·재활용품 선별·하수슬러지 소각 등을 수행하는 전주중합리 사이클링타운을 운영해왔으나 입주업체는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입주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손꼽히는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공업용관을 매설하기로 결정했다.

해당지역에 공업용수가 공급되면 리

연간 수도요금에 약 5억6000만원이 절감된다.

나아가,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입주업체(총 11개 업체)의 경우에도 연간 약 9700여 만원의 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공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강승권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세계가 자원순환시대로 나아가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예산 절감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 '연달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은?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연달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 중이다. 리조트 관계자는 "올해 들어 큰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 고객과 직원 안전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오전 6시 57분경 초급자용

코스 리프트가 멈춰 서 탑승객 33명이 공중에 고립된 채 1시간 동안 추위와 공포에 떨었다. 당시 사고 원인은 전자 시스템 이상이었다.

리조트는 이날 수리를 마치고 오후 6시 30분경 정상운영 했다. 탑승객 일부는 저체온증 등을 호소했지만 다행

히 큰 부상은 없었다.

또, 지난 23일 오후 10시 5분경 리조트에서 스키장 슬로프 정비를 하던 A모씨(38)는 스노보드를 타고 스키장 슬로프를 거슬러 올라가던 중 슬로프 정설작업을 위해 설치된 철재 와이어에 부딪혔다. A모씨는 가슴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강석훈 기자

'전직 기자 폭행 의혹' 손석희 측 "허위 사실"

전직 기자 김모씨(49)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63) 측이 과거 접촉사고 때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 등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JTBC는 지난 2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손 대표의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이며 이를 증명할 근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 "이"는 이번 사안을 의도적으로 '손석희 홀집네기'로 몰고 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문제 당사자 김모씨의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포함한 이번 사안을 둘러싼 모든 가짜 뉴스 작성자와 유포자,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매체에 대해선 추가 고소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의 당사자인 김모씨가 손 사장에게 거역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구체적인 공갈 협박의 자료는 일일이 밝히는 대신 수사 기관에 모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모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모씨는 지난 24일 "손 대표가 2017년 접촉사고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이를 기사화할까봐 이를 막고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녹취록,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김모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오해려 협박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이

어 "정탁을 거절하자 김모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두들긴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JTBC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 지비로 배상한 적이 있는데, 실제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얽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합의를 한 일이다"며 "이 일을 알게 된 김모씨가 지난해 여름 손 대표를 찾아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배nam이 관련되면 일이 커진다. 기사화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모씨는 손 대표에게 노골적으로 정규직 특채를 요구했고, 손 사장이 '회사 규정에 없는 채용은 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최근 김모씨가 거역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현재 김모씨를 공갈미수·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강석훈 기자

'전주출신' 한기중 감독작 나온다

전주영상위, 오늘 디지털독립영화관서 '돼지의 최후' 시사회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영화 <돼지의 최후> 시사회를 오는 28일 저녁 7시 전주 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무료로 상영할 예정이다. 이번 영화는 전주 출신의 작품으로 남원 서도역과 군산 구일본인 농장창고에서 모든 장면을 촬영했다.



특히 이번 시사회는 전주영상위원회와 전주시의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해 기획했으며, 이를 응원하기 위해 (사)전주영상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수 전주시장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상영이후에

는 감독/배우와 관객과의 대화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영화 <돼지의 최후>는 (감독: 한기중, 주연: 이정민, 서진원) 1945년 8월 14일 군산항, 일제의 항복을 하루 앞둔 날, 일제강점기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9명의 사

람들이 서로의 신분을 숨긴 채, 일 본으로 떠나는 마지막 배를 타기 위해 군산항의 한 금융조합에 모이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블랙코미디 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의회, 올 첫 의정 돌입

한복 입고 본회의 진행 '눈길'

전주시의회가 우리 옷 한복입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5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에서 모든 시의원이 한복을 입고 본회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의원들은 기해년 새해 첫 회의에 금박 지수를 곁게 새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또 회의 진행을 돕는 의회사무국 직원과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도 한복을 입었다.

박병술 의장은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사회 분

위기 조성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한복을 입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한복입기 대중화에 앞장서 많은 시민들이 한복을 사랑하고 즐겨 입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16년에 한복 착용 문화 장려 및 한복의 날 지정(매월 넷째 주 토요일) 등의 내용을 담은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주시는 이 조례에 따라 한복의 날부터 한복 착용자에게 경기전 입장료 할인(50%) 혜택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복 거리 패션쇼와 한복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한복착용 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효철 기자

'위험의 외주화, 전주 산단 실태조사 필요'

서난이 전주시의원, 5분 발언서 "노동행정 전담조직 운영을"



서난이 전주시의원

전주시는 건설업과 제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자리 여건과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는 부문을 감안해 신속히 '위험의 외주화, 전주 산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산업현장 사고사망자 통계를 분석해 보면 5인 미만 사업장과 10~29인 사업장이 총 49.7%로 작은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사고사망률이 높다. 사망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42.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0.1%로 가장 많다.

이 통계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작고 단순 노무의 일자리의 산업재해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6년 사이에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가 85%에 달하고 부상자 또한 하청 노동자가 98%로 집중되어 있다.

서 의원은 "사건이 터지거나 하면 수습하기 위해 TF팀을 꾸려 사후 사태수습을 하는데 급급하다"며,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나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급업체에 안전관련 사고 발생 시, 도급사업장 근로자의 피해는 물론 사업장 전체에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하고 이

는 원청업체에 납품할 물품의 품질저하 혹은 납기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 의원은 "근로환경에 대해서 지역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지자체가 사업장에 대한 효율성 있는 지원 역시 마련할 수 있다"며, "규모의 스크린도어 사건때 진상규명위원회는 근로현장과 지자체가 마련해야 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발표했지만 어떤 지자체도 그 가이드라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다수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사업장과 직무를 전면 재검토해 위탁업체의 실생생, 수습, 인건 등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시민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해 노동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첫째, "산단의 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문제에 대한 진단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업무상 재해율이 높은 직군을 분류, 안전대책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점검 및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전문컨설팅을 운영하고 근로기준법을 경영진과 노동자 모두에게 교육해,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파견근로자, 협력업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동행정 전담조직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대부분은 노동자인데 시민의 삶에 노동관리를 전주시가 함께 보호해주고 시민의 안전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주시에 주문했다. /송효철 기자

카본디자인, 미국 CES 전북도내 기업 유일 참가

전주시 탄소기업이 세계 최대 국제 전자제품박람회에 참가하면서 4차산업혁명 시장 중심에 섰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주)카본디자인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2019에 전북지역 기업중 유일하게 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제품 분야의 세계 최대 박람회인 CES는 세계 기술의 혁신과 변화의 확고하고 미래기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전시회로, 올해는 인공지능(AI)·초고화질(UHD,8K)TV·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을 리드할 테크놀로지 분야 산업을 화두로 열렸다.

(주)카본디자인은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T)뿐 아니라 일본 최대 주택설비업체 중 하나인 LIXIL, 미국과 브라질 등 세계 각국 기업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창호 (주)카본디자인 대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홈 시큐리티 제품의 IOT 플랫폼을 활용해 탄소소재를 활용한 홈 IOT 제품의 대중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검찰, 송 지사 항소 다시 법정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지사는 송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결과 사실오인 등의 이유 있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 등을 언급한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40만여 개를 전북 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자에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석훈 기자

군산서 절도 피의자 검거

군산경찰서는 지난 25일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절도)로 A모씨(21)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모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경 군산시 한 편의점에서 B모씨(21)가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쳐 이날 오전 2시 12분경 해당 편의점에서 화장품 등 15,000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지난 24일 오전 11시경 A모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자전거 훔친 50대 불구속 입건

무료급식소 앞에서 자전거를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5일 절도 혐의로 A모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모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45분경 군산시 한 무료급식소 앞에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지난 24일 오전 9시경 A모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